



필리핀한상공회의소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January 2024 Issue | Vol. 06

SPECIAL POINTS OF INTEREST

- 올해 필리핀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page 1-2
- 한국, 금융 시장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규제당국 발표 —page 2
- 필리핀 디지털화 제한 정책 —page 2-3
- 무역흑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page 3-4
- SRA는 50억 페소 규모의 직접 설탕 구매 예산이 수확량의 10-15%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page 4-5
- 중앙은행 통화위원회, 2023년 제4분기에 대한 33.2억 달러 외화 차입 승인 — page 5-6

올해 필리핀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January 21, 2024 | Louella Desiderio | The Philippine Star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은 올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플러스 3 (ASEAN+3) 산하의 동남아시아 지역 경제전망 기구 (AMRO)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난 주에 발표된 AMRO의 동남아시아 지역 경제전망의 1월 분기 업데이트에 따르면, 필리핀은 작년의 예상 성장률 5.6%에서 올해에는 6.3%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예측은 지난 11월에 발표된 AMRO의 필리핀에 대한 연례 협상 보고서에서 제시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AMRO가 제시한 올해 필리핀의 성장 전망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으며, 이로 인해 필리핀은 6.2%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캄보디아, 6%로 예상되는 베트남, 5.2%로 예상되는 인도네시아, 5%로 예상되는 말레이시아, 4.7%로 예상되는 라오스, 3.3%로 예상되는 태국, 3.2%로 예상되는 미얀마, 2.6%로 예상되는 싱가포르, 그리고 2.4%로 예상되는 브루나이 다루살람을 앞서고 있습니다.



The January Quarterly Update of the AMRO's ASEAN+3 Regional Economic Outlook released last week showed the Philippines is expected to grow by 6.3 percent this year from an estimated growth of 5.6 percent last year.

Philstar.com / Irra Lising

올해 필리핀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성장은 정부가 재조정된 2024년 성장 목표인 6.5%에서 7.5%에 미치지 못합니다.

AMRO가 내린 2023년 필리핀의 성장 예상은 지난 해 정부가 설정한 6%에서 7%의 성장 목표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AMRO의 수석 경제학자인 Hoe Ee Khor는 "필리핀 경제는 실제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매우 잘 유지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 국가들에 비해 수출에 훨씬 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의 약한 수출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브리핑에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네 번째 분기의 국가 경제 성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 때문에 더욱 약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방코 센트럴 농 필리핀 (BSP)은 지난해의 정책 회의에서 기준 이자율을 6.50%로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에는 경제가 2분기의 4.3% 성장과 비교하여 더 빠르게 5.9%로 성장했습니다. 이로써 1월부터 9월까지의 성장률은 5.5%가 되었습니다.

Khor는 인플레이션이 정부의 목표 범위 내에 들어올 때까지 이자율을 비교적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12월에 인플레이션이 3.9%로 감소했지만, 2023년의 국가 평균 인플레이션율은 2022년의 5.8%보다 높은 6%이며, BSP의 2%에서 4%의 목표보다 높습니다.

AMRO는 필리핀의 인플레이션율이 올해 3.6%로 느슨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hor는 "만약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중반에 이자율을 인하하기 시작하면, 필리핀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강하게 성장하는 한, 우리는 BSP가 이자율을 낮추는 긴급성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지역적 전망에 대해서는 AMRO가 올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2023년의 추정 성장률 4.3%에서 더 빠른 속도로 4.9%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ont. page 2]

올해 필리핀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Cont. from page 1]

AMRO는 또한 ASEAN+3, 즉 ASEAN, 중국, 홍콩, 일본 및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지역이 올해 2023년의 4.4%에서 4.5%로 예상되는 높은 성장세에 돌입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Khor는 ASEAN+3의 성장이 견고한 국내 수요와 수출 증가로 인해 이번 해에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글로벌 상품 가격의 급등은 여전히 성장에 대한 주요 리스크이지만, 여러 다른 불확실성 요인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국의 경기후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2024년 말의 미국 선거를 앞두고 정책 불확실성과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기후 변화, 사이버 공격 및 전염병과 같은 지속적인 성장 위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그 위험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01/21/2327285/philippines-lead-asean-growth-year>

한국, 금융 시장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로 규제당국 발표

January 22, 2024 | Reuters | BusinessWorld



REUTERS

서울 — 대한민국은 금융 시장을 투자자 친화적이고 외국인에게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금융감독당국이 월요일에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FSC)의 부위원장 김소영은 서울에서 외국 금융기관과의 회의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는데, 이는 지난 11월의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그들의 사업 확장을 돕기 위한 방법을 논의한 것입니다.

"정부는 금융 산업을 국제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특히 외국 금융기관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말했습니다.

"전반적인 틀에서, 우리는 한국 시장을 외국 투자자에게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FSC에 따르면, HSBC, JP 모건, Societe Generale 등 10개 외국 기업의 관계자들이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이 외국인들의 금융 시장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채택한 규제 개혁 중 하나는 30년 전에 도입된 외국인들이 상장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 당국에 등록해야 했던 규칙을 폐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에는 당국이 외국 기업들에 의한 일부 불법 거래를 발견한 후, 2024년 상반기까지 주식 공매도에 급작스러운 일시 금지를 부과했습니다.

이 조치는 외국인의 접근을 방해하고 시장 효율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world/2024/01/22/570348/south-korea-to-make-financial-markets-more-attractive-regulator-says/>

필리핀 디지털화 제한 정책

January 23, 2024 | Niña Myka Pauline Arceo | The Manila Times

디지털화는 필리핀에서 구식 정책에 의해 방해받고 있으며, 인프라 및 기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세계은행이 말했습니다.

The Manila Times®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필리핀의 인터넷 연결은 가격 대비 속도와 접근성에서 뒤쳐져 디지털 참여에 불균형한 풍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워싱턴 소재의 다자간 기구는 1월 정책 노트에서 말했습니다.

제한된 인터넷 접속은 사람들과 기업의 디지털 잠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의 부족한 브로드밴드 인프라는 투자를 억제하고 시장 경쟁력이 약한 상태를 유발하는 구식 정책 틀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둘 다 브로드밴드 확장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세계은행은 덧붙였습니다. [Cont. page 3]

필리핀 디지털화 제한 정책

[Cont. from page 2]

"필리핀의 미흡한 브로드밴드 인프라의 근본적인 제약 요인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원하는 진입, 투자 및 섹터 성과를 얻기 위해 종합적인 개혁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세계은행은 기타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필리핀 가정에서의 고정 브로드밴드 수용률이 2022년 기준으로 33%에 불과하며, 말레이시아의 50%, 태국의 58%, 베트남의 76%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필리핀은 고정 브로드밴드 연결이 없는 아세안 국가 중에서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역량의 부족으로 이어져 엑셀의 기본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필리핀인이 단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편, 문서에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6%뿐이며, 이메일에 첨부 파일을 추가할 수 있는 사람은 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투자 측면에서 필리핀은 2022년에 국내 총생산(GDP)의 0.44%만을 통신 인프라에 투자했으며, 이는 2018년의 0.64%에서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는 지난 15년 동안 100개 이상의 국가가 적어도 1% 이상을 투자한 것보다 훨씬 낮다고 세계은행이 말했습니다.

"연결성에 대한 법률은 방대한 기술 발전, 진화하는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접근 격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변경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지적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집중된, 가장 수익성이 높은, 그리고 가장 적게 투자된 시장" 중에서 브로드밴드 시장은 아직도 두 거대 기업의 손에 남아 있으며, 이들은 시골 지역의 커버리지를 확장할 동기가 부족하고 의무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은행은 규제적 약점으로는 시장 진입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이 있으며, 이에 는 지루한 라이선싱 절차 및 입법 특허 취득 요건, 공정하지 않은 경쟁 환경, 비효율적인 인프라 공유 정책 및 구식 주파수 관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은행은 투자를 촉진하여 인터넷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안된 "데이터 전송에 대한 개방적 접근" 법안은 다른 조치들과 함께 "유망하고 실행 가능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2022년 12월에 대표원에서 통과되었으며 아직 상원에서 대기 중이며, 국가적인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에 대한 정부 투자 및 대중들의 접근 향상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스펙트럼 재배치와 같은 개혁들은 더 높은 데이터 속도를 용이하게 할 것이며, 주파수 경매 및 가격 변경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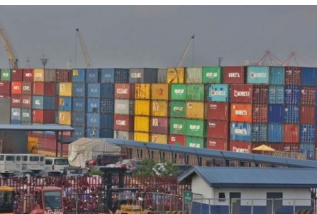
세계은행은 "무력의 비용 — 성장 기회 상실, 미래 직업에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디지털 격차 확대 — 는 필리핀에게 너무 크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필리핀인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디지털화를 통한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필리핀의 정책을 업데이트하여 경쟁 촉진, 투자 유도 및 브로드밴드 인프라 개선이 절박하고 필수적입니다," 덧붙였습니다.

Source: <https://www.manilatimes.net/2024/01/23/business/top-business/policies-limiting-ph-digitalization/1929280>

무역흑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January 23, 2024 | Lawrence Agcaoili | The Philippine Star



Hundreds of containers are seen stacked at a port along Road 10 in Tondo, Manila on June 16, 2023.
STAR / Ernie Penaredondo

마닐라, 필리핀 — 네덜란드의 금융 거인 ING에 따르면, 올해 필리핀의 무역적자는 수출 감소와 수입 증가로 인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NG의 수석 경제학자 니콜라스 마파는 지난 해 11월 수출의 예상보다 큰 감소와 자본 수입의 놀라운 증가로 인해 작년 11월의 무역적자가 예상보다 깊게 확대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통계청(PSA)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1월 국가의 무역적자는 10월의 43.9억 달러에서 46.9억 달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발전은 현재 계정이 마찬가지로 적자에 직면하고 있으며, 향후 몇 달 동안 필리핀 페소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리킨다," 마파는 말했습니다. [Cont. page 4]

무역흑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Cont. from page 3]

마파에 따르면, 무역적자의 지속적인 확대는 4분기 순수출이 다시 부정적 영토로 미뤄질 수 있으며, 3분기에 GDP 성장에 1.6 퍼센트 포인트를 기여한 후 전반적인 국내총생산(GDP)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추세는 2024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전히 기본 전자 부품에 대한 세계 수요가 약한 가운데 수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동안 수입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마파는 11월에 수출이 예상보다 13.7% 감소했으며, 중요한 전자 부문은 기본 반도체 부품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둔한 영향으로 24.7%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주요 제품의 수출도 감소했다고 그는 말했는데, 다른 제조 제품은 1.8%, 다른 광물 제품은 6.2%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그는 수입 측면에서 7개월 동안 부정적인 영토에 있던 자본재 수입이 항공기 주문과 대형 운송 장비의 일괄적인 증가로 0.1%의 소량 증가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슷하게 소비재 수입도 견조하게 유지되었으며, 승용차 및 생선, 쌀과 같은 기본 식품품목의 강한 수입으로 15.4% 증가했습니다.

"수입 트렌드는 최근의 발전을 반영하고 있으며, 국가 정부가 쌀과 생선과 같은 중요 식품품목을 수입하여 인플레이션 대응을 돕는 것이다. 한편 항공기의 공급은 항공사들의 코로나 이전 비행 용량에 근접하기 위한 지속적인 새로운 항공기 도입 작업과 일치한다," 마파는 말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국가의 무역 적자는 전년 대비 8.8% 축소되어 487.98억 달러로, 전년의 537.2억 달러에서 감소했습니다.

수출은 731.8억 달러에서 670.3억 달러로 8.4%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더 빠른 속도로 8.6% 감소하여 1,260.9억 달러에서 1,160.1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 송금은 지난 해 1월부터 11월까지 2.9% 증가하여 335.8억 달러로, 은행을 통한 현금 송금은 2.8% 증가하여 302.1억 달러로 미세하게 증가했습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01/22/2327490/trade-gap-expected-widen-further>

SRA는 50억 페소 규모의 직접 설탕 구매 예산이 수확량의 10-15%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January 22, 2024 | Adrian H. Halili | BusinessWorld

설탕 규제청(SRA)은 정부의 50억 페소 예산을 갖춘 직접 구매 계획이 설탕 수확량의 10-15%를 농민들로부터 직접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RA 관리자인 파블로 루이스 S. 아즈코나는 이 프로그램의 자금 수준은 1억 750만 ~ 1억 800만 50킬로그램 설탕 가방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시사한다고 월요일에 말했습니다.

"50억 페소는 설탕 산업에 대한 매우 한정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으로 남은 생산의 대략 10-15%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즈코나 씨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즈코나 씨는 1월 15일 현재 수확량이 60%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약 100만 메트릭 톤(MT)에 해당합니다. 수확이 시작될 때 규제기관은 작황 기간 동안 185만 MT의 생산량을 예상했습니다.

지난 주에 정부는 농지 출구가와 소매 가격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부로부터 설탕을 직접 구매하기 위해 50억 페소를 할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농림부, 필리핀 국제무역공사(PITC), 그리고 산업 대표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채택되었습니다.

아즈코나 씨는 PITC가 설탕 구매를 감독할 것이며, 이는 소매 시장에 직접 판매되거나 충분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버퍼 재고로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PITC가 더 높은 가격에 구매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농부들은 1마리당 2,700에서 2,800 페소 또는 그 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즈코나 씨가 말했습니다. [Cont. page 5]



Direct sugar procurement budget of P5B equivalent to 10-15% of harvest, SRA says

[Cont. from page 4]

현재 원설탕의 거래 가격은 50킬로그램당 P2,200에서 P2,300에서부터 P2,500까지의 범위에 이릅니다. 이는 규제기관이 제분 계절 시작 시에 예상한 50킬로그램당 P3,000 미만입니다.

그는 구매한 설탕이 정제되어 1킬로그램당 P85에 소매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즈코나 씨는 SRA가 소매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설탕 구매를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산업의 권고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빨리 이 일을 처리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계획은 모두가 서면 권고서를 제출하고, 우리는 이번 주 안에 다른 모든 제안 및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 모여 앉을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달 종료 전에 이를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즈코나 씨는 SRA가 현재의 높은 설탕 가격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가격 위원회와도 회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매우 충분한 공급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매 가격이 높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작년 말에는 산업 단체들이 설탕의 거래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필리핀의 United Sugar Producers Federation은 원설탕이 50킬로그램당 P2,300에서 P2,500으로 하락했으며, 이는 생산 비용을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한편, 아즈코나 씨는 9월 이후 설탕 수요가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설탕 수요가 대략 20%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체들이 설탕 대안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수치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4/01/22/570580/direct-sugar-procurement-budget-of-p5b-equivalent-to-10-15-of-harvest-sra-says/>

중앙은행 통화위원회, 2023년 제4분기에 대한 33.2억 달러 외화 차입 승인

January 22, 2024 | Kris Crismundo and Anna Leah Gonzales | Philippine News Agency



마닐라 - 필리핀 중앙은행인 "방코 센트랄 농 필리핀"은 월요일에 통화위원회가 2023년 제4분기에 중장기 외화 차입액으로 33.2억 달러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공공부문의 외화 차입액은 2022년 동기 대비 65.8% 증가하여 20억 달러에서 뛰어넘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의 총 중장기 외화 차입은 144.9억 달러로 뛰어올랐으며, 이는 24건의 중장기 차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20억 달러가 넘는 두 차례의 채권 발행, 56.7억 달러의 12건의 프로젝트 대출 및 48.2억 달러의 10건의 프로그램 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루어진 외화 차입은 국가 정부의 인프라, 농업, 교육, 경제 회복 및 발전, 환경 보호 및 기후 저항력,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병 2019 (Covid-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3년의 외화 차입 중 상당 부분은 국공립부문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포함한 교통 프로젝트 등에 40.7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반 자금 조달을 위해 40억 달러, 경제 회복 및 발전, 환경 보호 및 기후 저항력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위해 30.7억 달러,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위해 22.7억 달러 등 총 14.49억 달러를 외화로 차입했습니다.

농업 및 교육 부문의 프로젝트에도 각각 8.8억 달러와 2.1억 달러가 외화 차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1987년 필리핀 공화국 헌법 제7조 제20항에 따르면, 필리핀 공화국이 계약하거나 보증하는 모든 외화 대출에 대해 필리핀 중앙은행, 즉 통화위원회를 통한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중앙은행은 말했습니다. [Cont. page 6]

BSP's Monetary Board Oks \$3.32-B foreign borrowings in Q4 2023

[Cont. from page 5]

“BSP는 자원의 분별된 사용을 촉진하고 외부 부채 요구 사항이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도록 하여 외부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Recto가 MB에 합류 한편, 재무부 장관 랄프 렉토가 월요일에 중앙은행의 최고 정책 결정 기관인 통화위원회(MB)의 정부 부문 대표로 취임하였습니다.

취임식은 중앙은행 총재이자 MB 의장인 엘라이 레몰로나 주니어에 의해 마닐라의 중앙은행 본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MB 구성원으로는 브루스 톨렌티노, 아니타 리타 아키노, 로미오 베르나르도, 로살리아 데 레온 및 렉토의 전임자인 벤자민 디오르노가 있습니다.

렉토는 2023년 1월 15일에 재무부에 임명되기 전에 3개 기간 동안(2001년부터 2007년 및 2010년부터 2022년) 상원의원이었으며 상원 부의장 및 마이너리티 리더를 비롯한 주요 직책을 맡았습니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 그는 바탕가스의 제4 지구 대표였습니다. 2008년에는 국가 경제 및 개발 기관의 사회 경제 기획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렉토는 헬스케어 법, 라이스 타리피케이션 법, 2018년 업무 수행 및 효율적인 정부 서비스 제공 법, 총 세금 면제,

자동차에 대한 소비세 정상화, 사회 개혁 및 빈곤 완화 법과 같은 다양한 세제 및 경제 개혁을 저술하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또한 Bayanihan to Recover as One Act와 Bayanihan to Heal as One Act를 공동 저술하여 국가가 코로나바이러스병 2019 대유행에서 빨리 회복되도록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Source: <https://www.pna.gov.ph/articles/1217425>



OFFICIAL. Finance Secretary Ralph Recto (right) takes his oath as the Cabinet representative to the Monetary Board of the Bangko Sentral ng Pilipinas at the BSP office on Monday (Jan. 22, 2024). The oath-taking ceremony was administered by BSP Governor and MB Chair Eli Remolona Jr. (Photo courtesy of BSP)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Lotte Corporation is the largest shareholder of Pepsi Cola Products Philippines Inc.